

김유신(金庾信)

2017. 11. 9.

주보돈 *

1. 두 갈래의 평가

후세 사람들은 흔히 역사 속에서 살다간 사람들을 나름의 시각과 기준을 세워 적절히 평가하려고 애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성인이나 영웅이었다고 치켜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악인, 폐인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한결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합치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비슷한 시각과 입장을 지녔다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대부분 그러할 터이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비슷한 시기에 오래도록 함께 활동한 김춘추(金春秋)와 김유신(金庾信)에 대한 평가를 그런 사례의 대표로서 손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까지 거의 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영원한 동지였다. 두 사람에 대해 언제나 비슷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서는 어느 쪽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동안 김춘추를 중심에 두고서 다른 경우는 비교적 많았지만 김유신을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편이다. 여기서는 후자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김유신은 595년 태어나 일생을 주로 군사적 활동으로 보내다가 말기에는 풍병을 얻어 79세 되던 해인 673년 자기의 집안에서 자연사하였다. 연령상으로 보면 당시로서는 천수를 다 누린 셈이었다. 사망하기 바로 직전 문무왕이 그의 사저를 방문해 위로하였고 사망 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양의 부의(賻儀)를 제공하였다. 당대에 그만큼 우대받은 사례를 별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신라가 삼국통일 전쟁을 완료한 이후에는 제일가는 원훈으로 길이 표상되었다.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마냥 평탄하였던 것만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한 슬한 난관과 고난을 겪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았다. 특히 그가 활동하던 7세기는 삼국이 서로 각기 명운을 걸고서 치열하게 항쟁을 벌였기에 앞날을 기늠하기가 힘든 격동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역임, 한국목간학회 회장 역임, 한국고대사학회 고문.

- 주요논저 : 『신라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1998, 신서원), 『금석문과 신라사』(2002, 지식산업사), 『가야사 새로 읽기』(2017, 주류성) 등.

기였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태생적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맹활약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의 신라사회를 힘차게 열어간 시대의 거인이었다. 것처럼 그가 신라사회를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였다는 점은 언제라도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마땅할 듯 싶다. 어쩌면 김유신이 지닌 태생적 한계가 도리어 그로 하여금 역사 속의 두드러진 인물이 되게 하지 않았을까.

2. 가계

김유신은 김해에 위치한 금관국(금관가야) 왕족의 후예였다. 여러 계통의 기록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금관국은 10대 구형왕(仇衡王, 일명 仇亥王)대인 532년(법흥왕 19)에 이르러 마침내 신라에 복속되었다. 멸망기의 장면을 떠올리면 신라를 대상으로 끝까지 항전하지는 않았음이 확인된다. 신라의 공세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여겨서 스스로 투항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낙동강 어귀라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하여 한때 여러 가야 세력 가운데 가장 선진국으로서 번영을 누리면서 크게 위세를 떨친 적이 있던 금관국은 역사의 뒀안길로 영원히 사라졌다.

마지막 구형왕은 자진 항복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참작된 탓인지 상등(上等)이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편입됨으로써 가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다. 그의 본거지였던 금관(오늘날 김해) 땅은 그에게 주어진 식읍으로서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 받았다. 그래서 그의 동생 탈지이질금(脫知爾叱今)이 거기에 머물면서 맡아 관리하였다. 신라가 이처럼 멸망한 금관국 왕족에 대해 굳이 최고 수준의 우대를 해 준 것은 인근의 다른 가야세력들로 하여금 자진 항복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다.

구형에게는 계화(桂花)라는 부인과의 사이에 노종(奴宗, 혹은 世宗이라고도 표기함), 무덕(武德), 무력(武力)의 세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항복한 뒤 아들 3인과 손자인 졸지공(卒支公)을 거느리고서 신라 왕도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다.

아들 가운데 셋째인 무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활동상은 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577년(진지왕 2) 백제가 서쪽 국경인 선산 방면 일대를 공격해 왔을 때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3천 7백급을 참획할 정도의 큰 군공을 세웠던 이찬 세종(世宗) 바로 그 인물이 만약 첫째인 노종과 동일하다면 그도 상당한 군사적 활약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셈이다. 노종이 세종이라면 그가 보유한 마지막 관등이 이찬이므로 신라에서 그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진평왕이 즉위하던 바로 579년에 상대등으로 임명된 노리부(弩里夫)를 발음상으로 보아 세종과 동일 인물이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름만을 놓고 보면 유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얼마 전 투항해온 가야계의 후예를 귀족회의의 주재자인 상대등의 자리에 올렸다고 상상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후 금관가야계가 신라 지배층 내부에서 놓였던 처지에 비추어 보아서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구형의 세 아들 가운데 활약상이 뚜렷이 확인되는 인물은 무력뿐이다. 무력은 바로

김유신의 할아버지이다. 그는 무력이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활발한 군사적 활동을 펼쳐 명성을 한껏 날렸다. 그의 이름이 기록상으로 처음 확인되는 것은 550년 무렵 세워진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에서이다. 거기에는 무력(武力, 여기에서는 武가 신라 조자라 할 另으로 표기되어 있다)이 탁부(喙部) 출신으로서 제6등인 아간지(阿澆)의 관등을 보유한 비차부지(比次夫智)란 인물과 나란히 고두림성재군주등(高頭林城在軍主等)이란 직함을 지니고서 등장한다. 그의 출신지는 비차부지와는 달리 사탁부이며 관등은 같은 아간지였다.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야계 왕족이 왕경으로 옮겨져 사탁부에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차부지는 『삼국사기』 44 열전 거칠부전(居柒夫傳)에 의하면 거칠부를 비롯한 대각간(大角干) 구진(仇珍) 등과 더불어 551년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작전을 전개할 때 주도적 역할을 맡은 8장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적성비의 첫머리에 보이는 이사부는 물론 무력도 등장하지가 않는다. 후술하듯이 이후 김무력이 한강 유역을 책임진 지방장관으로서 계속해서 활동한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이 방면 진출에서도 참전한 것으로 봄이 온당하다. 아마 당시 그들과 배속된 군단이 달랐던 데서 기록상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고두림성재군주등’을 둘러싸고서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이를 ‘고두림성에 있는 군주들’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 싶다. 고두림성의 현재 위치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적성을 공략하기에 바로 앞서 전진기지로서 기능한 곳으로 군주는 거기에 진을 치고서 최전선의 병력을 지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무력이 이 시점에 아찬으로서 군주란 직명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일단 주목되는 점이다.

신라는 551년 백제 및 가야와 연합세력을 구성해서 한강 유역으로 나아가는 데 성공하였다. 한강 상류의 고구려 10군(郡)을 확보하였고 이어서 553년에 이르러서는 백제가 앞서 고구려로부터 되찾은 한성 등 한강 중·하류 지역까지 수중에 넣었다. 이 지역을 영원한 영역으로 지배하기 위해 새로 편입된 지방이란 뜻의 신주(新州)로 명명하고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이처럼 550년 이후 김무력은 한강 유역 진출은 물론 이후 이 방면의 군사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한강 유역은 신라가 오랜 동맹국이었던 백제를 급작스레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소유욕을 강하게 드러낸 대상이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의 향방에 명운을 걸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만한 위험 부담이 뒤따르는 지역이기도 하였다는 의미이겠다. 그와 같이 비중이 큰 최전선 영토를 책임진 최고 지휘관 군주 자리에 김무력이 임명된 사실은 신라 지배층 내부에서 차지한 그의 위상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고구려와 백제의 두 방면으로부터 강력한 공세를 당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었으므로 사실 김무력의 입장에서는 기회이지만 위험 부담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그로서는 장래가 걸린 일종의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상태나 다름없었다.

힘들게 수복한 한강 유역을 잃은 백제가 머지않아 보복 공격을 가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과연 554년 성왕의 아들 여창(餘昌)을 총사령관으로 삼은 백제의 3만

병력이 신라를 공격해 왔다. 두 나라 사이에 일대 격전이 벌어진 것이다. 백제로부터 신라로 나아가는 데 거치게 되는 주요 길목 가운데 하나인 관산성(管山城)을 둘러싸고서 두 나라 사이에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백제가 초반전에는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성왕은 잠시 승전 소식을 접하고서 아들 여창을 격려해 주기 위해 별다른 대책도 없이 급하게 전장으로 달려갔다.

바로 이때 신라는 관산성 지역 전투에서 불리해지자 총력적 지원을 하기 위해 김무력의 신주 병력을 이쪽으로 급파하던 중이었다. 김무력 휘하의 군사가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성왕을 급습하여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사로잡힌 성왕은 무력의 군영으로 끌려가서 목 베이는 수모를 당하면서 최후를 맞았다. 이를 기화로 백제군은 기세가 크게 꺾이며 3만명에 달하는 전체 병력 대부분이 몰살되는 참패를 당하였다. 총사령관 여창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탈출해서 귀환하였다.

신라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으로써 크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게 된 정황에 맞추어 기존 외교정책 전반은 재정비되어야 하였다. 신라는 관산성전투에서 백제를 도와준 사실을 빌미로 가야에 대해 총공세를 가하여 562년 완전히 제압하였다. 그 동안 명맥을 유지해오던 가야 제세력은 이로써 완전히 소멸되었다.

신라가 위협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까지 한강 유역을 장악하려 한 밑바탕에는 사실 선진국인 중국과 직접 통교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짙게 깔려 있었다. 손아귀에 넣은 가야 전역에 대한 대충의 정지 작업이 마무리될 즈음인 564년 신라는 본래 의도했던 대로 중국의 북조에 사신을 파견하고 이어서 남조와도 통교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차츰 삼국 간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아갔다.

김무력은 진흥왕 일대를 통해 영역 확장을 도모한 여러 전투에서 줄곧 앞장서서 최고의 수훈을 세웠다. 561년 세워진 진흥왕 창녕비에는 국왕을 따라간 이른바 수가인(隨駕人) 수십 명 가운데 김무력이 3등관인 잡간(漚干)을 보유한 인물로서 나타난다. 근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6등인 아찬에서 3등인 잡찬까지 승진한 것이다. 다만, 그 뒤에 세워진 북한산비를 비롯해서 568년의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도 역시 잡간을 보유한 김무력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상과 같이 김무력은 특이하게도 적성비 이후 마운령비에 이르기까지 진흥왕대에 변경의 영역 확장과 연관된 모든 비문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는 김무력이 진흥왕대의 영역 확장 추진에 얼마나 크게 공헌하였는지를 여실히 입증해 주는 사실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승진이 그리 빨랐던 것 같지는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561년에 잡간이었으나 568년에도 여전히 같은 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사망할 때까지 이찬으로 승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말년의 승급은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던 것 같다. 이 점은 신라 핵심 지배층 내부에서 가야계가 차지하는 위상 전반과 관련된다. 가야계의 정치적 한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3. 출생과 성장

김유신의 아버지는 김서현(金舒玄)이다. 조선 초기까지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유신비에서는 소연(遯衍)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서현이 보유한 최후 관등은 소판(蘇判, 3등 관인 逆濬의 일명)으로서 당시 대양주도독(大梁州都督)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서현의 젊은 시절에 이루어진 혼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는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신라 지배층 내에서 금관가야계의 위상 및 김유신 출생 내막을 잘 들려주기 때문이다.

서현은 총각 시절 길을 가다가 입종(立宗) 갈문왕의 아들인 숙흥종(肅訖宗)의 딸 만명(萬明)을 만나 사랑에 빠져 야합하였다. 숙흥종은 아버지가 입종(立宗)이었으므로 진흥왕의 동생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만명은 진흥왕의 질녀이며 당시의 국왕 진평왕에게는 당고모에 해당하므로 신라 최고의 핵심 왕족이라 하겠다. 서현과 만명과의 결합은 그리 순조롭지가 못하였다. 이후의 진행 과정이 그를 여실히 보여 준다.

때마침 총각인 서현이 만노군태수(萬弩郡太守, 충북 진천)로 발령나자 만명을 몰래 현지로 데려가려 하였다. 그 사실을 안 숙흥종은 그녀를 별채에 가두어 가지 못하게 막고는 사람을 시켜서 지키게 하였다. 그러자 홀연히 벼락이 쳐서 문을 깨부수자 지키던 사람이 놀라고 소동이 벌어졌다. 만명은 혼란스런 틈을 타고 구멍으로 빠져나와 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서현은 무력의 아들로서 당당한 진골 귀족이었다. 그럼에도 숙흥종의 딸과 공식적 결합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다. 서현이 만명과 우연히 야합하였다거나 그녀를 가두어 두었는데 탈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떠나서 가야계가 전통 진골귀족과 혼인을 맺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았음을 반영해 준다. 뒷날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文姬)가 김춘추와 혼인하려 하였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금관가야계가 비록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주류 세력들로부터 극심한 견제와 배척을 당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어쩌면 최전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군공을 크게 세웠던 무력조차 승진이 그리 빠르지 않았던 사실도 그 점을 생각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는 김유신의 정치적 입장을 진단하는 데 각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의하면 김서현이 만노군태수로 근무 중일 때의 어느 경진(庚辰)일 밤 형혹성(熒惑星, 화성)과 진성(鎭星, 토성)의 두 별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만명부인 또한 21일쯤 뒤인 신축(辛丑)일 밤 갑옷을 입은 동자가 구름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임신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20개월이 흐른 뒤인 595년(진평왕 17) 유신이 태어났다. 『삼국유사』 김유신조에서는 그가 본디 고구려의 유명한 점쟁이였던 추남(楸南)이란 인물이었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자 복수를 하기 위해 신라에서 환생하게 되었다는 크게 흥미를 끌 만한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서현이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정하려고 하면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경진일에 꿈을 꾸었으므로 그를 마땅히 이름으로 삼아야 하나 일월을 이름으로 짓는 것은 예가 아니므로 ‘경(庚)’과 모양이 비슷한 ‘유(庾)’를 쓰고, ‘진(辰)’과 발음이 비슷한 ‘신(信)’을 써서

유신이라고 함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마침 옛날 현인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있으므로 그렇게 짓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인으로서 유신이란 인물은 북주 때 시문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으며 『춘추좌씨전』 등의 유학 경전에도 매우 밝았다. 한문식의 이름 속에는 장래 희망 사항이 깃들기도 함은 일반적 양상이다. 서현이 당시 널리 알려진 현자의 이름을 선택한 것은 힘들게 얻은 자신의 첫 아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란 염원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서현은 유신이 장차 자라서 유학에 밝은 인물이 되기를 바랐을 듯하다. 당시 진평왕이 석가족 신앙을 기반으로 신라국가를 실제로 불국토로 만들려고 한 지향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이다. 서현이 주류의 진골 귀족들이 추구한 방향은 물론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어 왔기에 그런 의식이 아들의 이름 속에 투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아버지로서는 자식이 장차 새로운 이상국가 건설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것처럼 유학식 이름을 지은 것이다. 서현으로서는 신라가 그 동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였으니 곧 유학을 이데올로기로 한 사회였다.

유신은 15세 되던 해에 화랑으로 선발되었다. 당시 그가 이끈 화랑도 조직의 이름은 용화향도(龍華香徒)라 불리었다. 용화는 미륵을 가리키며, 향도는 향을 태우는 무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용화향도는 미륵을 숭앙하며 그 경배의 방식으로 향을 태우는 집단이라는 뜻이겠다. 용화향도는 이렇듯 김유신이 이끈 화랑도의 성격상 특징을 반영한 명칭이다.

유신은 17세 되던 해인 611년(진평왕 33) 화랑으로서 고구려와 백제 병합의 웅지를 품고 홀로 중악(中嶽)의 석굴에 들어가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에 정진하였다. 현재 중악 석굴은 팔공산은혜사의 말사인 중암암(中巖庵)에 있는 석굴로 추정되고 있다. 거기에서 난승(難勝)이란 도인을 만나 삼국 통합의 비법을 전수 받았다고 한다. 중악은 오악(五嶽)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날 대구의 팔공산을 가리킨다. 오악은 신라가 통일 이후 수용된 산악신앙 체계의 하나였으므로 김유신의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불리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수련을 위해 팔공산에 들어갔다는 사실 외의 내용은 후대에 부회된 요소가 적지 않을 터이다. 유신은 그 이듬해인 612년에는 다시 경주 부근의 열박산(咽薄山) 깊은 계곡에 들어가 같은 방식으로 수련을 통합으로써 자신이 차고 있던 보검에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았다고 한다.

4. 출사와 정권 장악

유신은 화랑으로서의 수련 과정을 거친 뒤 곧장 관료나 군관으로 선발되었겠지만 그 구체적 활약상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활동 모습이 처음 나오는 것은 629년(진평왕 51) 당시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낭비성(娘臂城, 충북 청주 부근)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하면서였다. 이때 이찬 임말리(任末里)가 총사령관, 파진찬 용춘(龍春)과 백용(白龍), 소관 대인(大因)과 서현 등이 그 휘하의 장군이였다. 김유신은 중당당주(中幢幢主)

로서 아버지 서현이 통솔한 부대에 소속하였다. 그는 출정군의 선봉에 서서 낭비성을 함락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출생지 부근이었던 까닭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익숙해진 지형지세가 한몫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소속한 중당이란 부대의 실체는 뚜렷하지 않으나 큰 군단에 포함된 하위 부대를 지칭하는 것 같다. 당주는 중급의 군관이 다. 이로 보면 당시 유신은 30대 중반의 적지 않은 나이였으므로 출사한 이후 이미 여러 관직을 거친 뒤라 짐작된다.

그 뒤 김유신의 본격적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642년 무렵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바로 이 해에 백제 병력이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대야성을 비롯한 군사적 거점인 40여 성을 장악하는 등 신라로서는 커다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다. 이제 두 나라는 낙동강을 전선으로 삼고서 대치하는 상태였다. 신라로서는 백제 병력이 왕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진출하였으므로 위기 위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사건이 신라의 내정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632년 선덕여왕의 즉위를 둘러싸고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지만 끝내에는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후 선덕여왕을 지지하는 일파(편의상 여왕파라 부름)와 반대하는 일파(편의상 귀족파라 부름)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불안정한 상태로 정국이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642년 백제 공격을 받아 옛 가야 영역 거의 전부가 상실되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방면을 군사적으로 책임진 인물은 김품석(金品釋)으로 그는 유력한 여왕파인 김춘추의 사위였다. 그가 대야성이 함락될 당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는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생활의 기본 신조로 삼던 신라인들의 맹비난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김춘추는 정치적으로 심한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김춘추는 그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원병을 구하러 고구려에 나아갔다. 이때 김유신은 국내에 머물면서 3천명의 결사대를 조직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김춘추의 고구려 원병 외교가 마침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당을 대상으로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여의치가 못하였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외교 활동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 극복을 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었다.

유신은 이때 최전방에 해당하는 압량주(押梁州)의 군주가 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군사 조련과 군사 작전에서 유신의 군사적 역량은 여지없이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644년에는 소관으로 승진하면서 상장군(上將軍)으로 임명되어 낙동강 이서 지역의 탈환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상당한 전과를 올려 당면의 위기 상태를 잠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던 차 647년 1월 상대등 비담(毗曇)이 왕위 승계를 겨냥하여 난을 일으킴으로써 신라는 심각한 내부 혼란에 빠졌다. 이 난은 신라국가뿐만 아니라 김유신 개인의 명운을 결정짓는 일대사건이기도 하였다.

비담은 선덕여왕을 반대하는 데 선봉에 선 인물이었다. 비담 일파는 642년 백제의 공격으로 큰 위기를 맞자 여왕파를 압박할 절호의 기회라 여겨 적극적 공세에 나선 바 있었다. 여왕파의 대표자는 김춘추와 김유신이었다. 그 후 양자의 대립·갈등으로 일어난 비담의 난은 이제 신라의 명운을 가르는 한판의 정치적 승부가 되었다.

고구려 대상의 원병 외교가 실패로 돌아가자 신라는 그 원병 외교의 대상을 당으로 돌렸다. 643년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사정을 설명하였을 때 당의 태종은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여 선택하하도록 강요하였다. 세 가지는 모두 신라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이었다. 그 가운데 신라가 솔깃하게 여겼을 계책에는 당이 신라에 구원 병력을 보내어 주는 대신 여왕을 당 황실의 인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엄청난 단서가 달려 있었다. 당은 현재 신라에서 여왕이 잘못 통치를 한 탓에 이웃나라들이 우습게 여겨 공세를 취하므로 근원을 아예 없애려 하면 여왕을 폐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어진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귀국한 사신 편으로 그 소식이 전해지자 신라 조정은 여왕의 문제를 둘러싸고 들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당은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면서 신라에 대해 사신을 보내어 오히려 뒤에서 출병하여 도와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신라로서는 백제의 공세를 바로 눈앞에 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논란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당은 백제도 역시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겠다고 하면서 신라를 설득하였다. 신라는 내부 논란을 거친 끝에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론지었다. 기록에 따라 동원된 수치에서 차이가 나지만 여하튼 신라는 병력을 파견하여 당을 지원하였다. 반면 백제는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 신라에 공세를 펼쳤다. 645년 당의 고구려 공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당을 적극 도움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의도한 여왕과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645년 11월 두 그룹 사이에는 일종의 타협안이 성립되어 귀족파의 우두머리인 비담을 상대등에 임명하였다.

당시 상대등은 여왕이 만약 결정적 후사 없이 사망할 경우 정당하게 왕위를 승계하는 데에는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 여왕과는 일시 불리해진 상황이었으므로 일단 그런 상대등 자리를 비담에게 양보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상황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선덕여왕의 사촌 여동생인 승만(勝曼)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 한바탕 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아 폭발할 시점만 남겨둔 상태였다.

바로 이 무렵인 646년 9월 왜(倭)로부터 645년 시작된 소위 대화개신(大化改新)의 추진 주역 가운데 핵심인 고향현리(高向玄理)가 신라를 방문하였다. 그가 사신으로 온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3개월이나 머물다가 12월에 귀국하였다. 김춘추는 이때 그와 함께 왜로 나아간 것 같다. 김춘추가 왜에 간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호적 외교관계의 수립과 함께 아마 대화개신의 내용, 내부 동향 및 여왕의 정치 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에서는 김춘추가 마치 불모로 파견된 듯이 기록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왜 조정 일각에서 그를 정치적 목적에서 억지로 불모로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을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647년 1월 초 이미 늙고 병든 선덕여왕이 언제 운명을 다할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었다. 게다가 여왕과의 거두 김춘추의 부재는 귀족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래서 비담은 이 기회를 틈타 왕위 계승을 겨냥한 난을 일으킨 것이었다. 비담 일파는 명활산성을 본거지로 삼아 왕성인 월성에 공세를 가하였다. 난이

발발한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선덕여왕은 사망하고 말았다. 아마도 난의 발발로부터 받은 충격도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여왕과는 기획한대로 승만을 즉위시켰으니 이가 곧 진덕여왕(眞德女王)이다.

난의 초기에는 비담 세력이 일시 우세하였다. 때마침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반란을 일으킨 비담 일파는 이를 여왕과가 패배할 명백한 징조라고 선전하면서 크게 기세를 올렸다. 반대로 여왕과는 민심이 잠시 흥흥해져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이때 김유신은 그렇지 않다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국왕을 안심시키면서 몰래 허수아비를 만들어 연에 실어 불을 붙여서 띄워 올리고는 사람을 시켜서 어제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되 돌아갔다고 선전하게 하였다. 이 책략으로 민심을 수습함으로써 비담 일파를 수세에 몰아넣고 마침내 완전히 제압하기에 이르렀다.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발휘된 김유신의 지도력은 군사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정치적 능력까지도 겸비한 인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이다. 그는 유학적 소양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병법까지 숙지한 뛰어난 책략가였다. 김춘추가 외교가로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후원해 줄 능력을 갖춘 든든한 후견인이었다. 김춘추와 김유신 두 사람의 관계는 평생토록 이어간 영원한 동지였다. 두 사람의 관계가 것처럼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기(意氣)가 투합하였기 때문이었다.

5. 정치 지향과 삼국통일

정통 진골 중심의 귀족사회에서 두 사람의 처지는 매우 비슷하였다. 그런 사정이 두 사람을 굳게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둘이 혈연관계를 맺으면서 사이는 한층 더 돈독해져 갔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다. 다가올 신라사회를 유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을 끈끈하게 연결시킨 사실상의 매개 고리는 바로 그 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진골로서 당대 최고의 신분에 속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전통적 귀족으로부터 차별당하는 처지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런 차별적 대우에 대응해가면서 점점 깊은 관계를 맺어갔지만 거꾸로 반대편으로부터는 더욱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두 사람의 출신 때문이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김유신은 금관국계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군공을 세웠지만 승진이 매우 더뎠고 심지어는 신분에 걸맞은 훈인관계를 맺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았다. 한편 김춘추도 그의 할아버지 진지왕(眞智王)이 진골귀족의 결의로 폐위되었다. 게다가 그의 출생 또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용춘은 흔히 진지왕의 영혼이 유부녀였던 도화녀(桃花女)와 결합함으로써 태어났다는 설화를 갖고 있는 비형랑(鼻荊郎) 바로 그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용춘은 진지왕의 비정상적 혼외정사로 출생한 셈이 된다. 이로

말미암아 용춘은 왕위 계승이 어려웠음은 물론 정통 진골귀족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아들인 춘추 또한 마찬가지로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출생의 한계 때문에 진골귀족 중심 사회 내에서 배제되고 소외당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존 지배체제에 불만을 갖고 그대로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유학에 바탕한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기에 이제 막 출범한 당(唐)을 그 표본으로 삼았다. 그들은 신라를 기왕의 진골귀족 중심 사회와는 어딘가 다른, 신분보다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대우받는 방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꿈과 이상을 품어가고 있었다.

그런 지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 유학식 이름의 사용이었다. 당시는 불교식 왕명에서 느껴지듯이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하였음에도 이 양자는 유학식 이름을 선택하였다. 유신은 북주의 저명한 시인이자 유학자의 이름에서 따왔고, 춘추는 그 자체가 공자의 저술로 알려진 『춘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이름들은 그들의 정치 지향이 어디 쪽이었던지를 뚜렷이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그들은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이른바 부체제적(部體制的) 질서가 해체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권적 지배체제로 전환해가는 과정의 신라를 새로이 요구된 충효(忠孝)와 인(仁)을 근간으로 삼는 유학적 질서가 작동하는 사회로 바꾸어가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권력의 중추에 나아가면서 유학 지배이데올로기 실현을 내세웠다. 사실 비담의 난은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해서체제를 유지해가려는 일파와 유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아 지배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세력 간의 대결이었다. 진평왕의 사망에 즈음하여 두 세력 사이에는 선덕여왕 계승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갈등과 대립이 벌어졌던 것이다. 선덕여왕이 즉위하게 된 것은 일방적 우세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나온 적당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김춘추 일파가 선덕여왕을 지원한 것은 실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 가는 방편에서였다.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다시 진덕여왕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춘추가 즉위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춘추도 비록 진골이기는 하였어도 곧바로 즉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진덕여왕의 즉위는 김춘추의 즉위를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에 지나지 않았다. 진덕여왕대에 추진된 당제를 모방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의 수용도 어디까지나 정치적 실권자 김춘추의 즉위를 위한 정치작업이었다.

김춘추가 집권하기에 이른 데에 제일가는 공훈을 세운 인물이 역시 김유신이었다. 두 사람은 비담의 난을 치르고 실권을 장악한 뒤 자신들의 이상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김춘추의 즉위는 그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러나 김춘추의 즉위 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의 즉위에 대한 발발이 끝까지 만만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은 진덕여왕이 사망하였을 때 진골귀족들이 상대등이었던 알천(闕川)을 과도기적,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섭정(攝政)으로 내세우고자 한 사실에서 유추된다. 당장 후계자를 결정짓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알천을 잠시나마 섭정으로 내세워 추이를 관망해 보자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이다. 이에 김춘추는 비록 세 번의 사양이라는 전대미문의 형식적 절차를 거쳤지만 현실의 정치력을 동원하여 즉위한 셈이었다. 그 배후에 김유신의 군사력이 크게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김춘추는 654년 마침내 즉위하였지만 아직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는 아니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정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즉위 이듬해인 655년 금강(金剛)을 상대등에 임명한 것은 그런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타협책이었다. 그러는 한편 자신의 왕자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요직에다 점점 전진 배치해 나갔다. 한편 백제로부터 가해지는 군사적 압박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군사력을 강화해 직접 전쟁을 치르는 방법 외에는 달리 없었다. 이처럼 안팎으로 당면한 정치 불안과 위기 상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동원되었다.

659년(무열왕 6) 신라는 백제가 변경을 자주 침범해오자 최후로 전면전 추진을 결심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당에 결사사(乞師使)를 파견해 놓고서 정치적 반대자인 김진주(金眞珠)를 병부령에 임명해 전쟁을 지원하도록 유도하였다. 태종무열왕은 결사사를 보내 놓고서 회신을 매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당의 지원 없이 백제와 일대일로 대결해서는 결정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따금씩 고구려로부터도 변경 침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도움은 패전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신라는 이미 648년 김춘추가 입당해 당의 태종과 밀약을 맺은 바 있다. 그에 근거하여 신라는 당에 대해 약속 이행을 명분으로 열렬히 청병을 하였던 것이다. 당과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뒤 당은 전자의 영토를, 신라는 후자의 그것을 갖는 것이 합의된 조건이었다. 그 동안 신라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백제 선공론(先攻論)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구려 공격을 고집하던 당이 드디어 이번에는 방침을 바꾸어 신라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그렇게 된 데에는 당 내부의 정치적 문제가 작용하였던 것 같다. 이로써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한 백제 공격이 시작되었다.

신라는 5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군제를 전시체제로 바꾸고 백제 총공격에 나섰다. 바로 이해 정월 금강이 사망하자 김유신을 상대등에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금관가야 계가 귀족회의의 주재자가 된 것은 신라사회의 근본 변화를 상징하는 일대사건이었다. 이로써 김춘추와 김유신의 지배체제가 명실상부하게 공식 출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열왕의 총지휘 아래 태자 김법민과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한 동원체제가 출범하였다. 전장에서 오래도록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온 김유신이 사실상의 총사령관이었다.

당군은 소정방(蘇定方)을 총사령관으로, 무열왕의 아들 김인문(金仁問)을 부사령관으로 한 13만으로 원정군을 편성하였다. 그들이 서해의 덕물도(德物島)에 이르자 무열왕은 합류하기 위해 병력을 한강 지역의 남천정(南川停)까지 진군시켰다. 이때 신라는 태자 법민(法敏)을 보내서 당과 합동으로 적전회의를 열었다. 당군은 그로부터 해로를 따라 남하해서 금강을 타고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신라군은 육로로 남하하여 합류하기로 하여 그 기일을 정하였다.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은 계백(階伯)이 지휘하는 백제의 5천 결사대를 황산벌에서 만나 치열하게 결전을 치르면서 고전한 탓에 약속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소정방이 신라의 독군(督軍) 김문영(金文穎)을 참수하려 하자 김유신과의 사이에 큰 마

찰이 발생하였다. 당은 신라가 군기를 어겼다는 핑계를 내세워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였다. 김유신은 당의 기본 의도를 간파하고서 만약 그러하다면 먼저 당과의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김유신의 강경한 대응으로 이 사건은 일단 마무리되는 하였지만 사실상 당이 어떤 입장에서 대백제전을 치르려는 것인지, 나아가 장차 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예고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660년 신라는 드디어 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일차 목적은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장적 고구려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 내부의 정치적 갈등 문제도 해결된 상태가 아니었다. 특히 당이 신라의 내분을 적절하게 이용해 정치적 간여를 하려들자 앞날이 그리 순탄치가 않음이 드러났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키자마자 김유신 등에 식읍을 주어 회유하려고 하였다. 이는 일종의 신라 지배층 분열 책동의 일환이었다. 김유신은 당의 의도를 간파하고 식읍 사역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당은 신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는 애초 밀약한대로 줄곧 백제의 옛 영토 확보에 주력한 반면 당은 백제 유민을 적당하게 활용해 신라를 견제하면서 그들을 고구려 공격에 적극 끌어들이려 하였다. 마침내는 신라까지도 기미주(羈糜州)로 삼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신라는 당이 자신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단 함세하여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공격을 할 때마다 매번 유신이 선봉으로 출정하였음은 물론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유신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져 갔다. 그에 반해 김유신은 더 늙고 또 병이 들면서 이제는 출정하기조차 곤란한 상황이 되어 갔다. 668년 당의 요청에 따라 고구려 원정을 위한 대대적 군사 편제를 할 때에는 문무왕이 그와 같은 유신의 형편을 미리 헤아리고서 그의 동생 흠순(欽純)과 자신의 동생 인문을 장군으로 삼아 출정시키려 하였다. 유신은 직접 출정하지 않는 대신 그들로 하여금 전장에 나아가면 장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 전쟁에 임해 민심을 얻는 방법 및 전술 등 제반 대책을 가르쳐 주었다.

신라군은 668년 당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공략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에 유신은 군공으로 신라에서 가장 높은 별정의 관등인 태대서발한(太舒發翰)과 5백호의 식읍을 포상 받았다. 태대서발한은 대대각간의 이칭으로서 신라가 멸망기까지 설정한 최고의 관등이었다. 이후 유신 외에 어느 누구도 그를 소지해본 적이 없는 사실로 미루어 신라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당의 고종도 유신의 군공을 포상하는 조서를 보내고 직접 당으로 와서 조회에 참여하기를 요청하였으나 그는 부응하지를 않았다.

669년 승전으로 확보된 전국의 목마장(馬廐) 174곳을 왕실용 22곳, 관용(官用) 10곳, 태대각간 유신에게 6곳, 태각간 인문에게 5곳, 그밖에 각간 7인에게 각기 3곳, 이찬 5인과 소관 4인에게 각기 2곳, 파진찬 6인, 대야찬 12인에게 각기 1개소씩을 포상용으로 분여하였다. 유신에게 파격적으로 최고인 6곳을 지급한 것을 보면 군공의 정도와 함께 그의 당시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겠다.

유신은 이른바 당과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인 673년 풍병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미리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을 때 문무왕이 직접 찾아와 위로하고 울면서 쾌유를 빌었다고 한다. 사망하였을 때 채백(彩帛) 1천필, 조 2천석을 상사에 쓰도록 부의하고 군악고취(軍樂鼓吹) 1백인을 보내어 금산원(金山原)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문무왕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신하로서는 이례적으로 묘비를 세워 공명을 기록하게 하고 수묘인 20호를 배당해 주었다. 실로 비할 바 없는 엄청난 대우였다.

통일 이후 신라는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일통삼한론(一統三韓論)을 내세워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때 통합의 원훈으로서 무열왕, 혹은 문무왕을 내세울 때 반드시 유신을 포함시킨 것은 그가 신라의 삼국 통합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것인지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그의 공훈은 오래도록 신라인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그의 공훈이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무열왕 김춘추의 후예들이 이끈 소위 중대 왕실은 김유신의 입장에서는 외손들이었다. 그것이 그의 공훈과 결합하여 한동안 빛을 발하였다. 그의 아들 삼광(三光)이 신문왕대에 시중을 역임한 사실을 그를 방증해 준다.

그런데 신라가 최전성기에 접어든 성덕왕 무렵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김유신의 손자인 윤중(允中)이 724년(성덕왕 24) 이찬으로서 시중에 취임하고 난 뒤 가까운 왕족들이 그에 대한 충애와 중용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 이때 성덕왕이 신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의 할아버지 유신의 덕분이라고 함으로써 일시 무마하자는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훈의 빛은 점점 바래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김유신 후손이 혜공왕대의 반란에 연루되어 죽임은 당하는 사례까지도 일어났다.

중대에 점차 왕족 중심의 지배체제가 확립되어 가자 유신의 후예들은 점점 핵심에서 밀려나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일어났다. 현손인 김장청(金長淸)이 『행록(行錄)』 10권을 편찬한 것도 바로 그 일환이었다. 흥덕왕대에 이르러서는 김유신을 흥무대왕(興武大王)으로 추봉하여 그의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신라사학회편, 『흥무대왕 김유신 연구』, 경인문화사, 2011.
박순교, 『김춘추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2006.
정순태, 『김유신 : 시대와 영웅』, 까치, 2000.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가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